

단국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오전)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중도퇴실할 경우 결시처리)
2. 문제번호와 답안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됨)
3. 문제별 답안작성란을 벗어나지 않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작성 시 인적사항 등 답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0점처리 됩니다.
5.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필, 샤프,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사용금지)
6.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원고지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7.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비닐백에 넣어 좌석 아래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사 중에 벨소리, 진동, 알람 등의 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십시오. (30점)

-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십시오. (200자 내외) (10점)
- 2)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십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저는 가능한 한 소설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아직 어려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소설을 통한 공감은 연주에도 좋은 영감을 줍니다. 절 가르쳐 주셨던 로스트로포비치 선생님께서도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백치」를 선물 받은 적이 있었지요. 제가 열두 살 때의 일이었어요. 로스트로포비치 선생님은 그 책을 제게 주시면서 “좋은 소설을 읽으면 마음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꼬마여서 뜻을 몰랐지만 지금은 알 듯합니다.

얼마 전 한국 공연을 앞두고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를 다시 읽었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세 살 생일 선물로 받은 책인데 이번에 세 번째로 읽었습니다. 다시 봐도 새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악보도 연주할 때마다 다른 곡이 되는 것처럼요.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안나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정숙한 부인인 안나가 청년 장교 브론스키를 만나 그를 사랑하게 되고, 금지된 사랑 때문에 비극을 맞게 됩니다. 이 소설에는 그 감정의 변화가 너무도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마치 톨스토이가 저를 안나의 머릿속으로 밀어 넣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랑이 자신을 죽이는 독약이 돼 버린 결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소설 「제인 에어」도 좋아하지만 「안나 카레니나」가 훨씬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인 에어」에는 제인만 있지만 「안나 카레니나」에는 안나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브론스키를 사랑했던 왕녀 키티, 안나의 남편인 카레닌 등 여러 인물들이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만나고 헤어집니다. 이 작품은 사람은 독립적인 인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딪치며 살아간다는 점을 제게 깨닫게 해 줍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이 소설을 읽은 때는 1996년 1월 슈만 첼로 협주곡 연주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곡 해석을 하면서 안나의 심리 상태를 떠올리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진 2악장을 연주할 때 저는 만날 수 없는 아들에 대한 안나의 모정을 떠올렸습니다.

「안나 카레니나」는 톨스토이가 자식을 둔 여인이 기차에 뛰어들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충격을 알리기 위해 썼다고 합니다. 저는 「안나 카레니나」를 통해 톨스토이를 알게 됐고 톨스토이의 『예술론』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예술론』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술이란 예술가가 경험으로 느낀 것을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다.”라고요. 저는 쇼스타코비치 협주곡을 연주하기 위해 23일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독일 연주회에서는 제가 쇼스타코비치 음악을 통해 느낀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 싶습니다.

출처 : 김창원 외, 『고등학교 문학』(출제진 재구성)

[나] 나는 사실만을 가지런하게 챙기는 문장이 마음에 듭니다. 나는 이런 문장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서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사실에 정확하게 입각한 군인의 언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인이 아니면 쓸 수가 없는 문장입니다. 군더더기가 없고, 무인들이 큰 칼을 한번 휘둘러서 사태를 정리해 버리듯이 한 번으로 끝내 버리는 문장을 이순신은 쓰고 있더군요. 그것이 나한테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재미가 없는 문장입니다. 아무런 수사적 장치가 없는 문장. 그러나 나한테 그것은 놀라운 문장이었습니다. 암담한 패전 소식이 육지로부터 전해 오는 날, 이순신은 “나는 밤새 혼자 앉아 있었다.”라고 씁니다. 아, 좋죠. “나는 밤새 혼자 앉아 있었다.” 이것은 죽이는 문장입니다. 슬프고 비통하고 곡을 하며 땅을 치고 울고 불고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밤새 혼자 앉아 있었다. 비록 육지의 패전 소식이 전해 왔지만 또

패전할 수 없기에 애통한 마음을 억누르고 혼자 앉아 있었다는 그 물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한 것이죠. 거기에 무슨 형용사와 수사학을 동원해서 수다를 떨어 본들, “나는 밤새 혼자 앉아 있었다.”를 당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혀 수사학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강력한 주어와 동사의 세계죠. 내가 사랑하는 주어와 동사의 세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에 입각해 있습니다.

……(중략)……

이순신은 또 일기에다, “오늘 어떤 녀석이 군율을 어겼기로 베었다.”라고 썼습니다. 기막히지요. 군율을 어겼기로 베었다. 그게 목을 베었다는 거지요. 그것이 그가 글을 쓰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완강한 사실에 입각하는 것이죠. 군율을 어겼기로 베었다. 그 머리를 베어서 장대에 끼워서 성 앞에 걸었다. 그래 놓고 그다음 문장을 계속 써요. “저녁때 바람이 불었다.” 해군들은 바람 부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배들을 바닷가에 나란히 자동차 세우듯이 대 놓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 배들이 서로 흔들려서 배들끼리 부딪칩니다. 바람이 불면 해군은 배를 끌어서 물 위로 올려놔야 배가 부서지지 않죠. “저녁때 바람이 불었다. 자는 병사들을 깨워서 물가로 내려보내서 배를 끌어 올리라고 지시했다.”라고 씁니다. 전쟁에서는 군율과 날씨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군율을 어긴 부하 놈 하나를 죽였다는 것 그거 뭐 별거 아니라는 듯이 써 버리고 바로 바람이 불었다는 사실만을 진술합니다. 수사, 형용사, 부사가 하나도 안 나오고 밋밋하고 재미가 없지만, 부하를 죽였다는 문장과 바람이 불었다는 문장 사이에서 그의 문장은 삼엄한 긴장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아주 전압이 높은 문장입니다. 볼트가 높은 고압 전류가 흐르는 문장입니다. 만지면 전기가 올 것처럼 찌르찌르 하는 문장이죠. 문과 대학에서는 그런 문장을 안 가르치더군요. 문과 대학에서는 셰익스피어, 밀턴, 워즈워스를 배웠습니다. 그것도 훌륭한 문장이었지만 내가 읽은 『난중일기』에는 그보다 더 좋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장군님께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출처 : 이성영 외, 『고등학교 국어』(출제진 재구성)

[다]



<미소>

상하게 된다. 출발이 좋아야 결과도 좋다. 인간을 이해하려는 진심의 애정이 사진으로 나타나야 감동도 생긴다. 멋진 사진만 얻을 요량으로 사람을 피사체로만 생각하면 곤란하다. 사진 속 인물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름답다.

어디 시장의 할머니뿐일까. 사진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어야 할 대목이다. 할머니를 시작으로 다른 사람까지 관심과 애정이 이어지리라 믿는다. 이렇게 찍은 사진이야말로 힘 있는 사진이 된다.

출처 : 윤광준, 『내가 찍고 싶은 사진』

[문제 2] [가]의 공리주의 입장에서 [나]와 [다]를 모두 비판하고, [라]의 강 노인이 땅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와 [다] 각각의 관점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 그 이유를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대표적인 공리주의자인 벤담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자연적 감정을 바탕으로 윤리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 점에서 공리주의는 감정 중심 윤리이다.

“인간은 본성상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가지 최고의 주인의 지배를 받고 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 주는 것 역시 오직 고통과 쾌락일 뿐이다. 한편으로는 옳음과 그름의 기준과 다른 한편으로는 원인과 결과의 사슬이 이 두 주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고통과 쾌락은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지배한다.”

……(중략)……

“공동체의 이익이란 도덕 용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에 속한다. ……(중략)…… 공동체란 그 구성원으로 간주되는 개인들의 집합에 불과한 가공일 뿐이다. ……(중략)…… 그렇다면 공동체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일 뿐이다.”

-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이처럼 벤담의 공리주의는 철저하게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이때 각각의 구성원은 오로지 한 사람으로만 간주되며, 그 누구도 한 사람 이상으로 혹은 한 사람 이하로 계산되지 않는다. 물론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며, 다만 그 양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차이는 쾌락 계산법에 의해 측정 가능하다. 벤담의 이러한 양적 쾌락주의는 곧 평등주의의 다른 표현이다.

이처럼 벤담은 ‘공리’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도덕의 목적이란 행복의 증진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노예 제도, 여성의 종속, 복수법*, 동물 학대 등과 같이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관행들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벤담의 이러한 급진적 개혁주의는 수많은 비판에 부딪혔다.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 단순히 욕구의 만족인 쾌락으로 간주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동물적·관능적 쾌락과 인간적·지적 쾌락을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그 양의 차이만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고유한 삶의 양식을 간과하였다는 것이다.

* 복수법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와 같이 가해자에게 동일한 복수를 허용하는 법을 말한다.

출처 : 박찬구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나]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의 이익이나 행복을 먼저 고려하는 관점이다.

인간 중심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우선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이분법적 관점을 취한다. 이분법적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이다.

또한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의 도구적 가치를 강조한다.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구성요소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연을 이용할 권리를 지니며, 자연에 대한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것이 인간의 필요와 이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달려 있다.

출처 : 정창우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다] 대지 윤리는 단순히 공동체의 범위를 토양, 물, 식물과 동물, 곤 포괄하여 대지를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손쉬운 일처럼 들린다.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자들의 땅과 용감한 자들의 고향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의무를 노래하지 않는가?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는가? 분명히 흙은 아니다. 우리는 어쩔 줄 모르고 흙을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다. 분명히 물은 아니다. 우리는 물은 터빈을 돌리고, 배를 띄우고, 오물을 실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분명 식물은 아니다. 우리는 눈 한번 깜박하지 않고 전체 군집을 절멸시킨다. 분명 동물도 아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몸집이 크고 가장 아름다운 많은 종의 동물을 몰살시켜왔다. 물론 대지 윤리가 이들 ‘자원’의 변경과 관리 및 사용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대지 윤리는 그들도 존속할 권리가 있음을, 그리고 좁은 구역이나 마 자연 상태로 존속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다.

간단히 말해서 대지 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 이자 시민으로 변화시킨다. 대지 윤리는 인류의 동료 구성원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중략)……

윤리가 진화할 수 있도록 풀어 주어야 할 빛장은 바로 이것이다. 바람직한 대지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라. 낱알의 물음을 경제적으로 무엇이 유리한가 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미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의 관점에서도 검토하라.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

출처 : 레오폴드, 『모래 군의 열두 달』(출제진 재구성)

[라] 강 노인이 이제는 재박에는 안 남은 쓰레기 태운 자리를 찾아오는 것도 바로 그 발 때문이었다. 발에 거름이 될 만하다 싶으면 그는 어떤 것이라도 낚고 더러운 망태기에 쓸어 담는 사람이었다. 결혼해서 따로 사는 아들이 둘이나 되지만 어느 놈 하나 생활비 보태 줄 자식은 없어서, 건재상과 이 층에 세 사는 이가 다달이 내미는 월세만 가지고 사는 형편이니만큼 강 노인 땅이 시가 몇억짜리 덩치라 한들 그 땅에 고추 농사나 지어서는 수지가 안 맞는 지주였다. 문제는 그 비싼 땅에다가 강 노인은 한사코 푸성귀 따워나 가꾸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데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임자가 나섰건만 이제는 절대 땅을 팔지 않겠다는 강 노인 고집에 막혀, 시청으로 통하는 2차선 도로의 양편으로는 여전히 밭농사가 계속되는 중이었다. 올해도 봄은 왔고 그래서 강 노인은 어김없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맨발 위에 신은 검정 고무신을 끌고 자신의 밭에 모습을 나타내었다.

……(중략)……

집주인들이 더 극성을 부리는 데에도 까닭은 있었다. 강 노인네 땅덩이들이 팔려서 거기에 번듯한 건물들이 들어서야 이 거리가 완벽하게 채워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 땅들이 모두 도로변에 있고 보면, 아니 도로변의 땅에다가 인분 뿌리며 푸성귀나 갈아먹는대서야 동네 모양새가 영 말이 아닌 것이다. 동네 신수가 흰해야 집값도 오를 터인데 모름지기 강 노인 밭이 저러고 있어서야 제값대로 보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클 것임은 자명했다.

……(중략)……

“땅은 안 돼. 안 팔아!”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우선 집 앞에 거라도 떼어 팔아 발등의 불이라도 꺼 봅시다. 다 자식 잘되라고 하는 짓인데 왜 그러우?”

“자식 놈들 뒷바라지에 땅 다 날려 보낸 걸 몰라!”

입씨름에 지친 마누라가 눈물 바람을 하다가 용문이 방으로 건너가 버린 뒤, 강 노인은 그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야만 했다. 자식 농사는 포기한 지 오래지만 해마다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재미만큼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였다. 서울에서 밀려 나온 서울 것들 때문에 여기까지 땅값이 들먹거리는 복새통을 치렀고 그 와중에서 자식들이 모두 저푼수로 커 버렸다는 원망도 많은 게 강 노인이었다. 씨 뿌린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수확이 아닌 담에야 어찌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쌀 사고 채소 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농사꾼 주제로는 평생 만져 볼 엄두도 못 내는 큰돈이 굴러 들어왔어도 쉽게 생긴 내력만큼 씹씹이도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마지막 땅 조각을 붙들고 있다는 위안이 강 노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이 고장에 서울 바람이 몰아닥쳐 요 모양으로 설익은 도시가 되지 않았더라면 아직껏 넓디넓은 땅을 가지고 있을 것이 틀림없는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더욱 울화가 치밀었는데 다 부질없는 노릇이었다.

.....(중략).....

다음 날 아침, 강 노인은 느지막이 집을 나섰다. 마누라한테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발길은 여전히 밭을 향했다. 밭고랑 사이로 밀고 올라오는 잡초를 뽑아내면서 문득 뒤돌아보니 원미산 장대봉이 그새 많이 푸르러져서 제법 운치가 있었다. 멀리서 보아야 아름답다 하여 ‘멀뚱’라 불리던 산이었다. 젊었을 적 나무하러 술하게 오르내려서 능선마다 그의 땀방울이 묻어 있기도 한 산이다. 그때가 언제인데, 참 질기게도 오래 산다는 생각이 들었다. 땅에서 뽑혀 나와 잠깐 만에 이파리들이 축 늘어져 버린 잡초를 새삼스레 들여다보다가 강 노인은 시름없이 밭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보니 어제오늘 고추 모종에 물을 주지 못한 게 생각났다. 아욱이야 그런대로 잘 자랐지만 마누라가 덩덤해하니 억센 걸잎이 밀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꽃아 놓은 개나리 가지에 움터 오던 노란 잎도 가뭄에 시달려 밥티처럼 오그라 붙었다. 햇살은 푸지게 내리쬘고, 아이들은 지물포 옆에 웅기종기 모여서 땀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강 노인은 쿵쿵 헛기침을 해 가며 강남 부동산으로 걸어갔다. 그러다 이내 되돌아서서 집을 향해 바쁜 걸음을 옮긴다. 암만해도 물 한 통쯤은 저 날라서 우선 이것들 목이나 축여 줘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출처 : 박영민 외, 『고등학교 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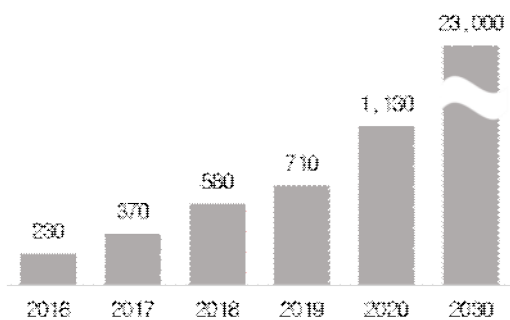
[문제 3] [가]의 관점에서 [나]의 내용을 서로 연관 지어 설명한 후,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이 직면한 [다]의 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라]의 자료 하나씩을 활용하여 서술하시오.
(단, [다]의 각 상황에 대응하는 [라]의 자료는 서로 달라야 함.) (600자 내외) (40점)

[가] 세계화에 앞장섰던 미국 등 선진국이 이제는 거꾸로 무역의 빚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자국 산업 보호가 명분이다. 과거에는 세계화에 반대하던 개발 도상국에서 보호 무역주의가 만연했지만, 지금은 정반대이다. 통상 당국 고위 관계자는 “신(新) 보호 무역주의라는 거대한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산업 통상 자원부와 세계 무역 기구(WTO)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쏟아 낸 무역 제한 조치는 월평균 21건에 달했다. 지난해 가장 많은 무역 제한 조치를 한 나라는 미국으로 90건의 무역 규제를 내놨다.

출처 : 정창우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나]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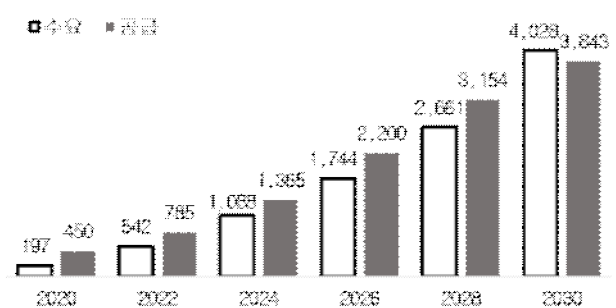
(단위 : 만대, 2030년은 전망치)



출처 : 『서울경제』, 2021. 4. 30.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 및 공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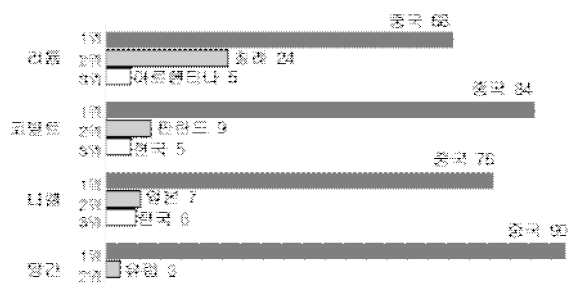
(단위 : GWh)



출처 : 『머니투데이』, 2021. 10. 13.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제련* 국가 비중>

(단위 : %)



* 제련 : 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녹여서 함유한 금속을 분리·추출하여 정제하는 일.

출처 : 『한겨레』, 2022. 10. 11.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용 일부>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600억 달러 세금 공제
- 풍력, 태양광에 300억 달러 지원
- 전기차 구매시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 세금 공제
-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 제공
-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배터리 부품, 광물이 일정 비율 이상 조달될 경우 보조금 혜택 제외

* 인플레이션 감축법 :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법으로,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2022년 8월 16일 발효.

출처 : 『연합뉴스』, 2022. 8. 9.(출제진 재구성)

[다] <상황 1>

<한국의 미국, 중국 수출액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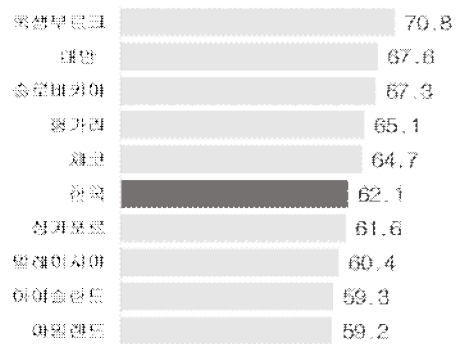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수출액			비중	
	전체	중국	미국	중국	미국
2022년 상반기	350,455	81,401	54,943	23.2	15.7
2021년 상반기	303,135	76,122	46,502	25.1	15.3
2021년	644,400	162,913	95,902	25.3	14.9
2020년	512,498	132,565	74,116	25.9	14.5
2019년	542,233	136,203	73,344	25.1	13.5
2018년	604,860	162,125	72,720	26.8	12.0

출처 : 『연합뉴스』, 2022. 7. 25.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상위 10개국>

(단위 : %)



* 무역 의존도 : 한 나라의 국민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하는 지표로, 국민 소득 또는 국민 총생산에 대한 수출입액의 비율.

출처 : 『연합뉴스』, 2018. 7. 6.

<상황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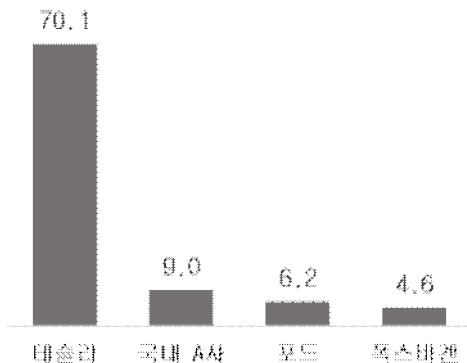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세금 공제 받는 전기차 모델>

업체	소속 국가	모델명
테슬라	미국	모델 Y, 모델 3 일부
포드	미국	이스케이프 PHEV, F시리즈, 무스탕마흐 E, 트랜시트밴
링컨	미국	에비에이터 PHEV, 코르세이르 플러그인
지프	미국	체로키 PHEV, 랭글러 PHEV
크라이슬러	미국	퍼시픽카 PHEV
리비안	미국	EDV, R1S, R1T
루시드	미국	에어
메르세데츠-벤츠	독일	EQS SUV
BMW	독일	X5, 330e(2022년형), 330e(2023년형)
아우디	독일	Q5
볼보	스웨덴	S60
닛산	일본	리프 2022년형, 리프 2023년형

출처 : 『중앙일보』, 2022. 8. 25.(출제진 재구성)

<2022년 상반기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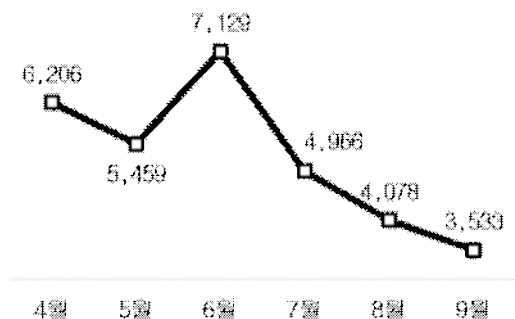
(단위 : %)



출처 : 『헤럴드경제』, 2022. 8. 18.

<2022년 국내 A사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대수>

(단위 :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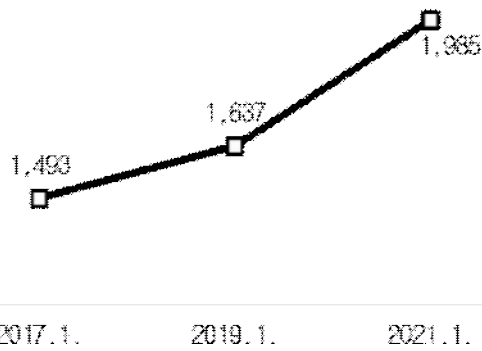


출처 : 『서울경제』, 2022. 10. 5.

<상황 3>

<광물종합지수* 추이>

(2016년 1월 = 1,0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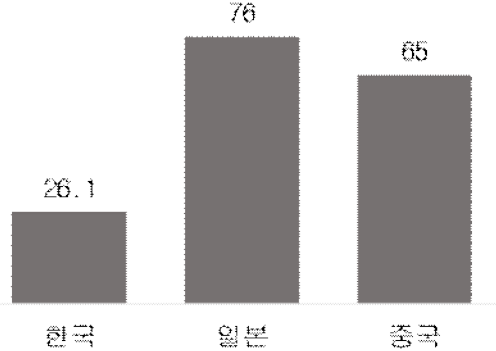


* 광물종합지수 : 주식시장의 종합주가지수처럼 산업적으로 중요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광물 15종의 가격 수준을 종합해 보여 주는 지수.

출처 : 한국광해공업공단, 『광물종합지수』

<광물 자주 개발률>

(단위 : %, 201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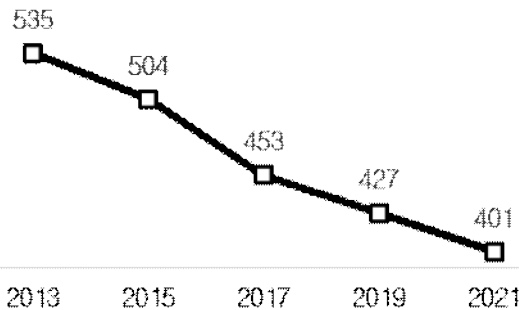


* 광물 자주 개발률 : 국내로 수입되는 전체 광물 자원 수입량 대비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광물 자원의 양.

출처 : 『서울경제』, 2022. 3. 24.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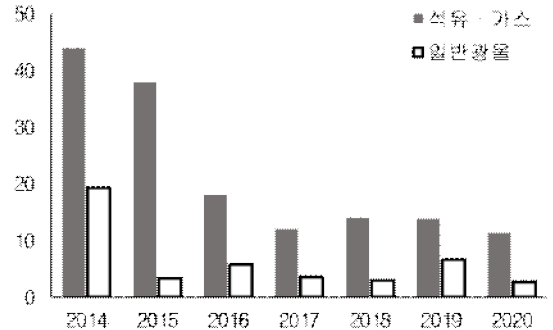
(단위 : 건)



출처 : 『서울경제』, 2022. 9. 4.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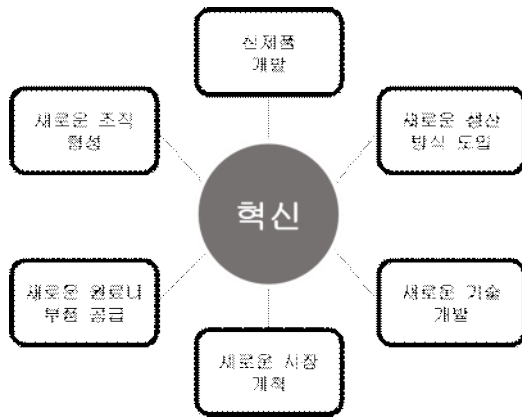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출처 : 『중앙선데이』, 2022. 3. 26.

[라] <자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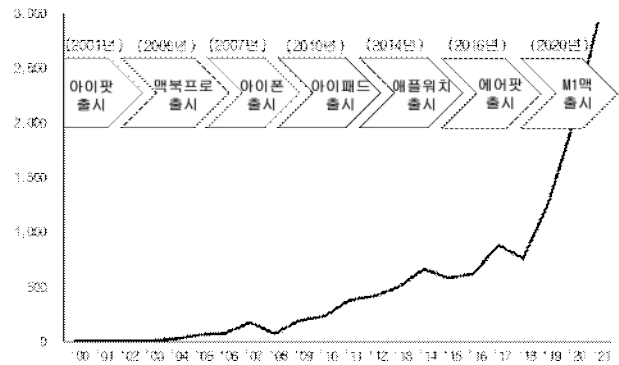
<기업 혁신의 종류>



출처 : 정창우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애플의 신제품 출시와 시가총액 변화>

(단위 : 십억 달러)



출처 : 『한국일보』, 2022. 1. 4.(출제진 재구성)

<자료 2>

임진왜란이 끝나고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경제력 회복을 위해 농지 개간을 장려하고 양안과 호적을 작성하였으며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이 무렵 세력을 확장하는 후금과 대치하던 명이 조선에 지원군을 요청하였다. 광해군은 명의 요구를 받아들여 파병하였으나, 당시 강성해진 후금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강홍립에게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지시하였다.

출처 : 이익주 외, 『고등학교 한국사』

고종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상황에서도 친서 전달, 특사 파견, 비공식 접촉, 국제기구 가입, 망명 정부 구상 등 다양한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국권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고종은 1904년 1월 16일 전시(戰時) 국외 중립 선언이 담긴 친서를 이탈리아 국왕 등에게 전달하였고, 1905년 칙령을 발표하여 대한 적십자사를 출범시키며 국제기구에도 가입하였다. 또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출처 : 김왕근 외, 『고등학교 정치와 법』

<자료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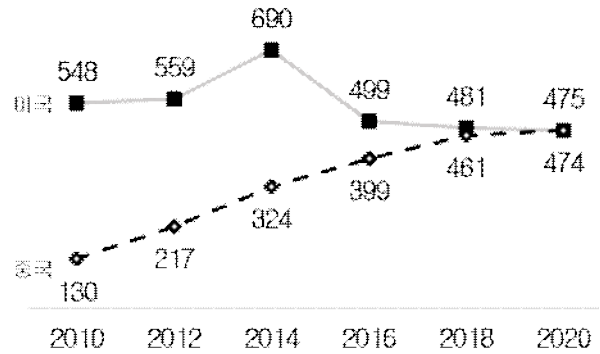
<중국과 일본의 아프리카 투자 및 진출 전략>

구분	중국	일본
투자 기간	2016~2018년	2017~2019년
규모	600억 달러	300억 달러
내용	인프라 정비, 자원개발	인프라 정비, 인재 육성
진출 전략	중국과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21세기형 실크로드 '일대일로' 완성	동·남중국해 등 중국과의 영토분쟁 대비해 우군 확보, 일본 기업의 차세대 먹거리 발굴
주도해 온 회의체	2000년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기구 조성	1993년 아프리카개발 회의(TICAD) 구상·개최

출처 : 『국민일보』, 2016. 8. 29.

<미국과 중국의 아프리카 누적 투자액>

(단위 : 억 달러)



출처 : 『서울경제』, 2021. 11.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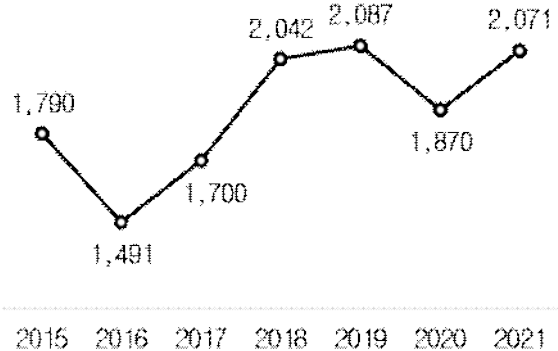
<매년 1월 중국 외교부장의 아프리카 방문국>

2022년 (예정)	에리트레아, 케냐, 코모로
2021년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콩고민주공화국, 보츠와나, 세이셸
2020년	이집트, 지부티, 에리트리아, 브룬디, 짐바브웨
2019년	에티오피아 부르키나파소, 잠비아, 세네갈
2018년	앙골라, 가봉,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출처 : 『조선일보』, 2022. 1. 3.

<중국과 아프리카의 무역액>

(단위 : 억 달러)



출처 : 『조선일보』, 2022. 1. 3.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자원은 석유, 석탄, 금, 다이아몬드, 구리, 코발트 등이며, 에너지 자원보다 광물 자원이 풍부한 편이다. 기니만 연안의 나이지리아는 세계적인 산유국으로 수출의 90% 이상을 석유가 차지할 정도로 생산량이 많다. 아프리카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석탄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금, 다이아몬드, 망간, 크롬 등의 자원도 풍부하다. 구리와 코발트는 아프리카 중·남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데 잠비아에서 콩고 민주 공화국으로 이어지는 지역은 구리와 코발트가 풍부하여 '코퍼 벨트'라 불린다. 최근 중국을 비롯한 일본, 러시아, 미국, 인도 등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산업 인프라를 제공하고 각종 개발 기금을 지원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자원 채굴권을 확보하고 있다.

출처 : 박철웅 외, 『고등학교 세계지리』